

2017 CUM MANUAL CONTENTS

나눔 교리

활용방안

나눔교리 원칙 01

나눔교리 원칙에 대한 설명 02

나눔교리 순서 04

나눔교리 예시 (사순 제3주일) 07

교안 예시 11

나의 교안 만들기 예시 17

말씀나누기 요령 25
(학생이 진행 할 때)

말씀나누기 요령 27
(교사가 진행 할 때)

학생 유형별 대처방안 29

CUM(꿈) 교재와 함께 하는

나눔교리 원칙

01 나눔교리는 강의가 아니라 나눔이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과
좋은 것을 모두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갈라 6,6)

02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하는 동반자다

“성실한 친구는 값으로 따질 수 없으니
어떤 저울로도 그의 가치를 달 수 없다.”
(집회 6,15)

03 학생은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가르치는 사람이다

“사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벌써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하나님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를
다시 남에게서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 5,12)

04 나눔은 교사의 솔직함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러므로 거짓을 벗어 버리고
저마다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에페 4,25)

05 강의준비(교리)만큼 학생관리(친교)도 중요하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우리와 친교를 나누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교는 아버지와 또 그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것입니다.”
(1요한 1,3)

01

나눔교리는 강의가 아니라 나눔이다

- a. 신앙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전염된다.
- b. 배운 것보다는 나눈 것이 더 오래간다.
- c. 학생들은 나눔을 싫어한다는 선입견을 깨라.
- d. 꼭 가르쳐야 할 내용이 있다면, 3분 정도로 요약해 준비하라.

- a.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가르칠 교사가 아니라 마음을 나눌 친구다.
- b. 학생이 지금 말 못할 고민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 c. 교사는 학생에게 엄격하기보다는 친절해야 한다.
- d. 교사는 자신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항은 가르치려 해서는 안된다.

02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하는 동반자다

03

학생은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가르치는 사람이다

- a. 학생은 생각보다 신앙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 b. 학생은 겸손하지 못한 교사를 존경하지 않는다.
- c. 학생의 말을 잘 귀담아 들으며 비판하지 마라.
- d. 교사는 학생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마라.

04

나눔은 교사의 솔직함에서부터 비롯된다

- a. 미사여구를 사용하지 말라.
- b.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솔직하게 말하라.
- c. 나눔에는 정답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 d. 교리에서 나온 이야기는 비밀을 지켜라.

- a. 교사는 학생을 1주일에 단 1시간 만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 b. 학기가 시작하기 전 반드시 개별학생과 상세한 면담을 하라.
- c. 수업 3일 전에는 학생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남겨라.
- d. 학생관리와 관련한 관찰(면담)노트를 2주일에 한 번 작성하라.
- e. 매달 책을 나눠 줄 때, 1페이지에 있는 '하늘에서 온 편지'를 잊지 말고 적어라.

05

강의준비(교리)만큼 학생관리(친교)도 중요하다

KOINONIA 나눔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사도 2, 44~45)

나눔교리 순서

1. 시작기도 (1분)

- '나눔교리 시작기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때에 따라서 자유기도를 바칠 수 있다.
-

2. 출석호명(생활나눔) (4분)

- 출석 호명 뒤에 생활나눔을 한다.
 - 교사도 반드시 생활나눔을 하라.
 - 이 때 진행자는 학생들의 신변의 변화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항을 노트한다.
-

3. 말씀듣기 및 해설 (5분)

- 먼저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바쳐라.
 - 총 2번을 읽되, 처음에는 한 학생씩 돌아가면서 1절씩 읽히라.
 - 두 번째는 전체가 함께 읽도록 하라.
(이 때 진행자도 함께 읽어라.)
 - 해설을 통해 복음의 주된 메시지가 무엇인지 밝히고, 학습목표와 복음의 연관성에 대해 언급한다.
-

4. 말씀 새기기 (5분)

- 복음의 내용을 되새길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객관식or단답형)를 풀어본다.
-

5. 말씀 나누기 (20분)

- '말씀 나누기' 질문을 다 같이 읽고, 질문을 잘 풀어서 다른 사람에게 묻는다.
- 진행자도 나눔에 참여하라.
- 학생들의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진행자가 적극 개입하여 독려하고 이끌도록 하라.

Cum 나눔교리 순서 과 함께 하는 나눔교리

6. 말씀 가꾸기 (5분) => 선택사용

- 나눔교리의 주제와 관련된 예화를 읽어보거나, 작업거리를 직접 해본다
 - 말씀 나누기 주제를 구현해 보는 시간이다.
-

7. 정리 (4분)

- 교안의 핵심이 담겨 있는 부분으로 자신의 말로 정리해서 설명해 주거나 교안의 정리를 그대로 읽어 준다.
-

8. 5분교리 (5분)

- 가톨릭 기본 교리를 설명한다.
 - 복음내용과는 별개로 진행한다.
-

9. 지도자 말씀

- 교사는 3분 정도 말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라.
 - 본격적인 교리가 아닌 도움말을 준다고 생각하라.
 - 학생들의 나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여 되짚어주면서 이 나눔과 복음과의 연관성을 일깨워줘라.
 - 그 외 학생들에게 전할 사항을 정리하여 알려라.
-

9. 마침기도 (1분)

- '나눔교리 마침기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때에 따라서 자유기도를 바칠 수 있다.





나눔교리 순서 과 함께 하는 나눔교리

1. 시작기도 (1분)

- a. '나눔교리 시작기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b. 때에 따라서 자유기도를 바칠 수 있다.
-

2. 출석호명(생활나눔) (4분)

- a. 출석 호명 뒤에 생활나눔을 한다.
 - b. 교사도 반드시 생활나눔을 하라.
 - c. 이 때 진행자는 학생들의 신변의 변화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항을 노트한다.
-

3. 말씀듣기 및 해설 (5분)

- a. 먼저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바치라.
 - b. 총 2편을 읽되, 처음에는 한 학생씩 돌아가면서 1절씩 읽히라.
 - c. 두 번째는 전체가 함께 읽도록 하라.
(이 때 진행자도 함께 읽어라.)
 - d. 해설을 통해 복음의 주된 메시지가 무엇인지 밝히고, 학습목표와 복음의 연관성에 대해 언급한다.
-

4. 말씀 새기기 (5분)

- a. 복음의 내용을 되새길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객관식or단답형)를 풀어본다.
-

5. 말씀 나누기 (20분)

- a. '말씀 나누기' 질문을 다 같이 읽고, 질문을 잘 풀어서 다른 사람에게 묻는다.
- b. 진행자도 나눔에 참여하라.
- c. 학생들의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진행자가 적극 개입하여 독려하고 이끌도록 하라.

교리

나눔교리 순서

6. 말씀 가꾸기 (5분) => 선택사용

- a. 나눔교리의 주제와 관련된 예화를 읽어보거나, 작업거리를 직접 해본다
 - b. 말씀 나누기 주제를 구현해 보는 시간이다.
-

7. 정리 (4분)

- a. 교안의 핵심이 담겨 있는 부분으로 자신의 말로 정리해서 설명해 주거나 교안의 정리를 그대로 읽어 준다.
-

8. 5분교리 (5분)

- a. 가톨릭 기본 교리를 설명한다.
 - b. 복음내용과는 별개로 진행한다.
-

9. 지도자 말씀

- a. 교사는 3분 정도 말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라.
 - b. 본격적인 교리가 아닌 도움말을 준다고 생각하라.
 - c. 학생들의 나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여 되짚어주면서 이 나눔과 복음과의 연관성을 일깨워줘라.
 - d. 그 외 학생들에게 전할 사항을 정리하여 알려라.
-

9. 마침기도 (1분)

- a. '나눔교리 마침기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b. 때에 따라서 자유기도를 바칠 수 있다.





나눔교리
시작기도

사랑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인
저희를 축복하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를 아는 것이

참지식이요
아버지를 닮는 것이
참지혜임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을 닮은
자녀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나눔교리
마침기도

감사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아버지 안에 함께 만나
아버지를 닮은 아름다운 별로
다시 빛나고 있는
저희의 감사를 받으소서.
아버지,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가 이 시간 나누며 배운
아버지의 지식과 지혜로
세상에 나아가
모두가 행복을 누리며
천국을 선편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순 제3주일 2017년 3월 19일

하나가 되기를 바라시는 하느님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시다

요한 4,5-15,19ㄴ-26,39ㄱ,40-42(짧은 복음)

5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이르셨다. 6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걷느라 지치신 예수님께서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7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8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다. 9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10 예수님께서서는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11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12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축들도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13 예수님께서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14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15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러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19ㄴ “선생님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20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21 예수님께서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

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²²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²³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²⁴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²⁵ 그 여자가 예수님께, “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 주시겠지요.” 하였다. ²⁶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³⁹ 그 고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⁴⁰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하자,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이들을 머무르셨다. ⁴¹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⁴²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



1. 시카르라는 고을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정오 무렵에 물을 길으러 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물을 길은 장소는 어디 일까요?

- ① 예루살렘 ② 시나이산 ③ 야곱의 우물 ④ 나자렛

2. 다음의 구절 중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을 누리게 할 것이다.”(요한4,14)

- ① 기쁨 ② 평화 ③ 생명 ④ 사랑

3.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서로를 매우 불편해 하였고, 심지어 상종하지도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둘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사자성어는 다음 중 무엇일까요?

- ① 관포지교(管鮑之交) ② 빈천지교(貧賤之交) ③ 견원지간(犬猿之間) ④ 수어지교(水魚之交)

말씀 나누기

1. 오늘 복음에서 마음에 와 닿은 구절을 읽고, 그 이유를 나누어 봅시다.
2. “사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요한 4,9)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차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가운데 직접 차별을 경험한 것이 있다면 나누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차별’은 무엇이 있을지 나누어 봅시다.
3. “너희가 이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요한 4,21)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모두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이를 사랑하시기 때문
 입니다. 우리도 차별을 극복한 경험이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말씀 가꾸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좋게 말하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이다.”(토마스 풀러)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진심을 담은 편지를 써보도록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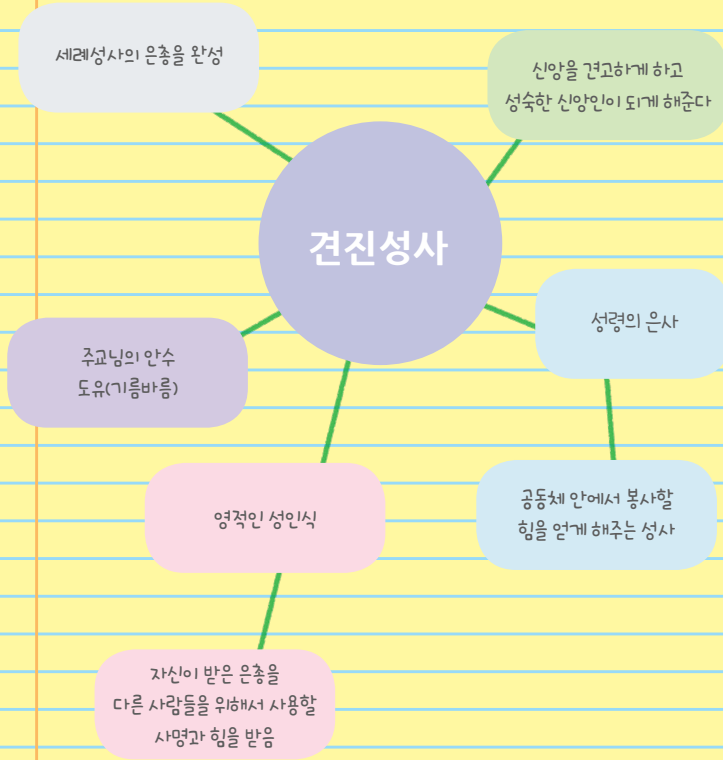
To.

from.

5분교리

12. 입문성사

12.3. 견진성사의 의미와 효과



사순 제3주일 교 안 록

교우주임	지도수녀	지도신부	결 재

교리시간	2017년 3월 19일	지도교사	성명	세례명
준비물	* CUM과 필기규와 함께 특별한 준비물을 적어준다.			
주제	하나가 되기를 바라시는 하느님			
학습목표	서로 반복하는 이들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배울 수 있다.			

교리순서	1. 시작기도 (1분) 2. 출석호명 + 생활 나눔 (4분) 3. 말씀 듣기 + 해설 (5분) 4. 말씀 새기기 (5분) 5. 말씀 나누기 (20분)	6. 말씀 가꾸기 (5분) - 선택사용 7. 정리 (4분) 8. 5분 교리 (5분) 9. 마침기도 (1분)
------	---	--

시작기도	<p>사랑합니다. 하느님 아버지.</p> <p>아버지의 이름으로 모인 저희를 축복 하소서.</p>	<p>아버지,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를 아는 것이 참 지식이요, 아버지를 닮는 것이 참 지혜임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을 닮은 자녀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p> <p>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p>
------	--	--

출석호명	출석을 부르며 학생의 근황을 묻는다(출석호명에 생활 나눔을 결합 수 있다.)
------	--

말씀 듣기	나눔교리의 핵심이 되는 말씀내용을 보며 정리된 설명을 준비한다.
-------	-------------------------------------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말씀 듣기] (요한 4.5-15.19L-26.39ㄱ.40-42)**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시다**

5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이르렀다. 6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걸느라 지치신 예수님께서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7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으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8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다. 9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대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사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인들과 상통하지 않았다. 10 예수님께서서는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11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12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까.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족들도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13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14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15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으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20 저희 조상들

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21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22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23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24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25 그 여자가 예수님께, “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야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 주시겠지요.” 하였다. 26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39 그 고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40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기를 청하자,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이들을 머무르셨다. 41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42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

[해설]

복음의 주된 메시지가 무엇인지 밝히고, 학습목표와 복음의 연관성에 대해 언급한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같은 하느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과 반목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종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래아에서 남쪽 유다 지방으로 이동하려면, 중앙에 있는 사마리아를 거쳐야 하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일부러 먼 길을 돌아서 갈 정도로 그들은 서로를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고을로 들어가시어 오늘 한 여인과 고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로 용서하고 포용하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말씀 새기기

복음의 내용을 상기시키기 위한 문제 풀이와 설명을 견한다.

[말씀 새기기]

말씀 새기기 문제는 복음의 내용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진행된다. 복음의 인물, 장소, 상황, 또는 중요한 구절 등을 문제로 출제한다. 교안(교사 또는 진행자)는 말씀 새기기 문제를 학생이 풀도록 도와주고, 동시에 다른 ‘보기’는 왜 답이 아닌지 알려주는 교안도 준비도 한다(단답형 주관식과 객관식으로 문제 출제, 객관식은 4선다형으로 출제).

[말씀 새기기 문제 1]

시카르라는 고을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정오 무렵에 물을 길으러 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고, 물을 길은 장소는 어디 일까요?

- ① 예루살렘 ② 시나이산 ③ 야곱의 우물 ④ 나자렛

정답 : ③ 야곱의 우물

※ 구약성경에는 야곱이 우물을 팠다는 기록이 남아 있지는 않지만 야곱이 ‘스켄’에 한동안 살면서 밭을 사기도 했으니(창세 33:18) 그곳에서 그가 우물을 팠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스켄’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65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곳으로, 열두 지파들이 모이던 이스라엘의 중심지였습니다.

[말씀 새기기 문제 2]

다음의 구절 중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을 누리게 할 것이다(요한 4:14)

- ① 기쁨 ② 평화 ③ 생명 ④ 사랑

정답 : ③ 생명

※ 물은 생명을 가진 모든 피조물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영원한 생명, 곧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 새기기 문제 3]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서로를 매우 불편해 하였고, 심지어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사자성어는 다음 중 무엇일까요?

- ① 판포지교(管鮑之交) ② 빈천지교(貧賤之交) ③ 견원지간(犬猿之間) ④ 수어지교(水魚之交)

정답 : ③ 견원지간(犬猿之間)

- ※ 판포지교(管鮑之交)는 '친구 사이의 두터운 우정', '매우 다정하고 허물 없는 교제'를 이르는 말입니다.
- 빈천지교(貧賤之交)는 '가난하고 천할 때 가까이 사귀 사이'로서 가장 힘들 때 함께 있어준 친구를 이르는 말입니다.
- 견원지간(犬猿之間)은 '개와 원숭이 사이'라는 뜻'으로, 사이가 몹시 좋지 않은 관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 수어지교(水魚之交)는 '물과 물고기의 관계'라는 뜻으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매우 친밀한 사이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말씀 나누기 중·고등부 교리의 핵심이며, 학생의 현실에 맞는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한다.

말씀 나누기의 질문은 복음의 구절을 토대로 선정한다. 복음의 한 구절이나 상황이 나눔의 주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선정하여, 그 구절이 나와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실천 사항으로 다가오는지 나누도록 한다.

[말씀 나누기 질문 1]

오늘 복음에서 마음에 와 닿은 구절을 읽고, 그 이유를 나누어 봅시다.

[말씀 나누기 질문 2]

"사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요한 4:9)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차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가운데 직접 차별을 경험한 것이 있다면 나누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차별'들은 무엇이 있을지 나누어 봅시다.
 ※ '차별'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에 따른 거부감에서 옵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서로 '차별'하였습니다. '차별'로 인한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길은 우리가 겪거나 본 '차별'을 '차별'이라고 인식하는 것에 있습니다.

[말씀 나누기 질문 3]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요한 4:21)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모두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이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차별을 극복한 경험이나, 그렇게 도움을 사람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차별'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나 스스로가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과 차별을 극복하도록 도와준 사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를 극복한 사례나 경험담을 함께 나눔으로써 '차별'로 인한 문제의식을 높이고,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친구들이 되어 봅시다.

말씀 가꾸기 복음의 내용과 비슷한 예화 또는 작업거리를 제공한다.(선택사용)

여러 미디어의 예화나 작업거리를 복음의 시선으로 볼 수 있도록 소개한다. 읽을 내용과 볼 내용, 들을 내용, 때로는 해를 내용(간략한 미로찾기, 틀린그림찾기 등의 게임을 포함하여 다양한 작업거리 가능)까지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복음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간략하게 정리해서 소개한다.

- ※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좋게 말하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이다."(토마스 풀러)
- 지금 이 자리에 있지는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진심을 담은 편지를 써보도록 합시다.

To 친구에게	
---------	--

정 리 복음의 메시지와 나눔의 메시지를 통합하여 정리한다.

정리는 3~4줄로 작성한다. 나눔교리 진행자는 마지막 정리를 풀어서 설명하거나 그대로 읽는다. 나누기가 주제와 동떨어지더라도 이 부분을 통해 다시 주제로 돌아 올 수 있다. 정리는 정확하고 구체적이며 교회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도록 전한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다는 믿음은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같은 자녀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안에 만연한 수많은 차별들은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도 그렇게 서로를 차별하고 미워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그분을 따르는 삶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수많은 차별을 극복하고 함께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5분 교리 매주 기본 교리의 학습을 위한 준비를 한다.

5분 교리는 복음의 메시지와 무관하며, 교리서의 내용을 2년 주기로 반복 교육하도록 준비한다. 교안자(교사, 진행자)는 5분 교리의 내용을 읽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설명하여 이해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한다. 참고도서는 「한국천주교 예비신자 교리서」와 「청년 교리서 'YOUCAT」, 「가톨릭교회 교리서」, 「가톨릭 대사전」을 참조할 수 있다.

또한 가톨릭 인터넷 뉴스 '굿뉴스'와 가톨릭 온라인 커뮤니티 '마리아사랑넷'을 활용할 수 있다.

예) 종교란 무엇인가? 가톨릭은 무엇인가?

12. 입문성사

12.3. 견진성사의 의미와 효과

세례성사를 통해서 모든 신앙인들은 성령을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태어나자부터 걸어 다니는 아기들이 없듯이, 신앙인들도 세례를 받고 나서 바로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유식을 먹으며 자라고 나면, 비로소 어른이 먹는 일반적인 음식을 먹게 되듯이, **신앙인들은 세례성사를 받고 난 뒤에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해주는 견진성사를 받게 됩니다.**

견진성사는 세례를 통해 이미 받은 성령의 은총을 더욱 성숙하게 받아들이고 성령의 은사에 따라 공동체 안에서 봉사할 힘을 얻게 해주는 성사입니다. 이 성사를 통해 우리는 **영적인 성인식을** 치르게 되며, 어른으로서 **자신이 받은 은총을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사명과 힘을 받게 됩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더욱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되고, 신앙을 전파하고 실천하며, 공동체에 봉사하는 일꾼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세례성사나 견진성사를 받으려고 준비하는 다른 사람들의 대부나 대모가 되어 그들의 신앙을 인도해주고 도와줄 자격을 얻게 되며, 더 나아가 성직자나 수도자로서 특별한 신앙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견진성사는 주교의 안수와 기쁨 마음으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을 통해 성령의 인호를 받게 됩니다. 이 인호는 세례성사 때 새겨진 영적인 인호를 완성함으로써 **세례성사의 은총을 완성**합니다. 주교님의 안수는 하느님의 축복과 은총을 전해주는 상징적 행위이며, 기쁨 마음은 우리가 하느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선발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건도의 및 공지사항 본당, 지구, 교구 행사 및 기타 필요한 내용을 회의한다.

본당의 교리교사 및 고등부 나눔교리 진행자가 작성하는 공간입니다.

지도자 말씀

본당의 교리교사가 작성하는 공간입니다.

마침기도	<p>감사합니다. 하느님 아버지.</p> <p>아버지 안에 함께 만나 아버지를 닮은 아름다운 별로 다시 빛나고 있는 저희의 감사를 받으소서.</p>	<p>아버지,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가 이 시간 나누며 배운 아버지의 지식과 지혜로 세상에 나아가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천국을 선포하게 하소서</p> <p>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p>
-------------	--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교안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자신의 교안으로 수정하세요.

사순 제3주일 교안 록

교무주임	지도수녀	지도신부	결재

교리시간	2017년 3월 19일	지도교사	성명	세례명
준비물	출석부, 교안, 필기구, CUM 교재, A4 크기 이스라엘 지도(해설),			
주제	하나가 되기를 바라시는 하느님			
학습목표	서로 반복하는 이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배울 수 있다.			

교리순서	1. 시작기도 (1분) 2. 출석호명 + 생활 나눔 (4분) 3. 말씀 듣기 + 해설 (5분) 4. 말씀 새기기 (5분) 5. 말씀 나누기 (20분)	6. 말씀 가꾸기 (5분) - 선택사용 7. 정리 (4분) 8. 5분 교리 (5분) 9. 마침기도 (1분)
------	---	--

시작기도	사랑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인 저희를 축복 하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를 아는 것이 참 지식이요, 아버지를 닮는 것이 참 지혜임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을 닮은 자녀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	---

출석호명	출석을 부르며 학생의 근황을 묻는다(출석호명에 생활 나눔을 곁할 수 있다.)
------	--

- 총 00명.

한 방향으로 돌아가며 순차적으로 '홍길동 베드로, 출석했습니다. 반갑습니다.'의 인사를 하는 방법 대신,

①기분이 좋아보이는 학생, 혹은 ②지난 교리시간 나눔 때 이번 주에 000을 한다고 했던 학생을 먼저 호명하여 질문한다.

첫 번째 학생의 생활 나눔 때 학생들의 반응을 확인하여 이후 학생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불러주며 생활 나눔을 한다.

말씀 듣기	나눔교리의 핵심이 되는 말씀내용을 보며 정리된 설명을 준비한다.
-------	-------------------------------------

- 복음을 읽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는다.

오늘 복음을 통해 나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뭔지 잘 생각해보자고 말하며, 함께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를 바친다.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말씀 듣기] (요한 4,5-15.19ㄴ-26.39ㄱ.40-42)

- 출석인원 00명 ÷ 복음 23절 = ??

나온 숫자의 소수점 이하를 버린 수가 1명이 읽어야 하는 절이 되게 하여 모든 학생이 복음을 소리 내어 읽을 수 있게 한다.

한 번에 읽어야 하는 절의 수가 2절을 넘어간다면 2절씩 끊어 읽게 하여 두 번씩 읽는다.
만약, 절의 수보다 출석인원이 많다면 복음을 두 번 읽도록 한다.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시다

- 5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이르렀다.
- 6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걸느라 지치신 예수님께서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 7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으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 8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다.
- 9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 10 예수님께서서는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 11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 12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족들도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 13 예수님께서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 14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 15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으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 19 “선생님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 20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 21 예수님께서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 22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다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 23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 24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 25 그 여자가 예수님께, “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 주시겠지요.”하였다.
- 26 그러자 예수님께서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 29 그 고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 40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하자,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이들을 머무르셨다.
- 41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 42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

[해설]

복음의 주된 메시지가 무엇인지 밝히고, 학습목표와 복음의 연관성에 대해 언급한다.

- 예수님께서서는 사마리아로 가셨어요? 혹시, 사마리아에 관하여 들어 본 적이 있는 사람?

(있으면 아는 것을 말해보게 하고, 없다면 설명해준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들어봤죠? 강도를 만난 사람을 자기들이 이방인이라고 무시하던 사마리아인만 도와줬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같은 하느님의 자녀님에도 불구하고 갈등과 반목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서로를 이방인이라며 상종조차 안했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여주며)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래아에서 남쪽 유다 지방으로 이동하려면, 중앙에 있는 사마리아를 거쳐야 하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일부러 멀~리 돌아서 갈 정도로 서로를 미워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고을로 들어가시어 한 여인과 고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죠.

하느님의 말씀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겠나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로 용서하고 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말씀 새기기 복음의 내용을 상기시키기 위한 문제 풀이와 설명을 겸한다.

[말씀 새기기]

- 자, 그럼 이제 간~단한 문제를 통해서 오늘 복음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 번 봅시다.

[말씀 새기기 문제 1]

시카르라는 고을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정오 무렵에 물을 길으러 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고, 물을 길은 장소는 어디 일까요?

- ① 예루살렘 ② 시나이산 ③ 야곱의 우물 ④ 나자렛

- 모두 함께 소리내어 문제를 읽도록 한다. 답을 찾은 학생은 다른 학생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머리에 손을 올리도록 한다.

정답 : ③ 야곱의 우물

- 대부분의 학생이 머리에 손을 올리면 제일 처음 올렸던 학생에게 정답이 뭔지, 어떻게 알았는지 물어본다. (맞춘 경우) 해당 절을 소리 내어 읽도록 한다.
- 정답이에요. 6절에 '야곱의 우물'이라고 적혀있고,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으러 왔다'고 적혀있어요. 야곱의 우물이 뭔지 궁금한 사람을 위해서 참고로 알려주자면, (아래 내용 설명)

※ 구약성경에는 야곱이 우물을 팠다는 기록이 남아 있지는 않지만 야곱이 '스켄'에 한동안 살면서 밭을 사기도 했으니(창세 33,18) 그곳에서 그가 우물을 팠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스켄'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65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곳으로, 열두 지파들이 모이던 이스라엘의 중심지였습니다.

[말씀 새기기 문제 2]

다음의 구절 중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을 누리게 할 것이다(요한 4,14)

- ① 기쁨 ② 평화 ③ 생명 ④ 사랑

- 2번 문제는 (맞춘 친구의 오른쪽 학생)이 큰~ 소리로 입도록 한다.

정답 : ③ 생명

- 물은 생명을 가진 모~든 피조물에게 없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원한 생명, 곧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새기기 문제 3]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서로를 매우 불편해 하였고, 심지어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사자성어는 다음 중 무엇일까요?

- ① 판포지교(管鮑之交) ② 빈천지교(貧賤之交) ③ 견원지간(犬猿之間) ④ 수어지교(水魚之交)

정답 : ③ 견원지간(犬猿之間)

※ 판포지교(管鮑之交)는 ‘친구 사이의 두터운 우정’, ‘매우 다정하고 허물 없는 교제’를 이르는 말입니다. 빈천지교(貧賤之交)는 ‘가난하고 천할 때 가까이 사귀어 가장 힘들 때 함께 있어준 친구를 이르는 말입니다.

견원지간(犬猿之間)은 ‘개와 원숭이 사이’라는 뜻’으로, 사이가 몹시 좋지 않은 관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수어지교(水魚之交)는 ‘물과 물고기의 관계’라는 뜻으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매우 친밀한 사이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 ‘견원지간’은 실제로 개와 원숭이의 사이가 안 좋아서 생긴 말은 아니고, 소설 ‘서유기’에서 손오공의 군대와 천군의 ‘이랑진군’의 군대가 싸울 때의 일화에서 나온 고사성어예요.
(손오공과 이랑진군이 막상막하로 싸우고 있어서 손오공의 군대인 원숭이들이 차마 싸움에 끼지 못하고 가슴 졸이며 지켜보고 있는데, 이랑진군의 진영에서 개떼를 풀어 습격하는 장면)

말씀 나누기 중·고등부 교리의 핵심이며, 학생의 현실에 맞는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한다.

[말씀 나누기 질문 1]

오늘 복음에서 마음에 와 닿은 구절을 읽고, 그 이유를 나누어 봅시다.

- 13절.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갈증. 이라고 부르죠, 목이 마른 것을.. 정말 참기 힘들어요. 영화같은 것을 보면, 바다에서 표류했을 때 목이 말라도 바닷물은 절대 마시지 말라고 하잖아요. 더 목말라져서 계속 더 많은 바닷물을 먹다가 결국 죽게 된다고.

그런데 영혼에도,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이런 상태가 있다는 것을 교사를 설 때 느꼈어요. 군대를 다녀오면서 자연스럽게 냉담을 했었던거거든요. 처음에는 좋았죠. 토요일과 주일에 친구도 만날 수 있고, 애인이랑 데이트도 할 수 있었으니까요(그때 진짜 애랑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친구였거든요). 그리고 많은 예능 프로그램을 본방으로 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해지는 거죠. 정말 목이 너무너무 마를 때 처럼 정신적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되나? 뭘해도 가슴 한 구석이 텅 빈 것처럼 이상했어요. 여자친구를 만나도, 친구를 만나도, 집에서 텅굴거려도, 힘들게 일을 해도. 그렇게 2년을 보냈어요. 이유가 뭔지 모른 채, 계속해서 목이 마르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 구절을 보니 그 때의 생각이 나서 더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들은 아무리 많아도 나를 채워주지 못하고, 다시 목마르게 하는 것 같아요.

- 들어가며 한 명씩 나눔을 하는 방식 대신 ①먼저 나눔을 하고 싶은 학생, ②생각이 끝나 보이는 학생, ③평소에 나눔을 잘 하는 학생을 먼저 시킨다. 아무도 없다면 나의 나눔을 먼저 한다.
- 한 명의 나눔이 끝나면 꼭 정리해서 '이러이러'해서 마음에 와닿았다고 말해준 것 같은데 맞는지 나눔한 학생에게 다시 확인한다. 그리고 다음 나눔자를 정할 때 만약 전에 나눔을 한 학생이 '학교'와 관련된 나눔이라면 '학교'와 관련된 것을 생각한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고 나눔을 부탁한다. 다음 학생부터는 '학교' 말고 혹은 다른 것과 관련된 학생이 있는지 물어보는 방법 등을 통하여 다양한 학생이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말씀 나누기 질문 2]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요한 4.9)

사마리아인들은 유다인들로부터 많은 차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가운데 직접 차별을 경험한 것이 있다면 나누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차별’들은 무엇이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 질문은 읽는 방식은 ‘말씀새기기’와 같이 함께 읽는 것과 한 명에게 부탁하는 것을 상황에 맞춰 사용한다.
- 제가 받은 ‘차별’은 무시하거나, 괴롭히는 그런 차별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좋은 쪽의 차별이었죠.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뭐냐면..
중2때 어머니가 식물인간이 되셨어요. 그때부터 차별이 시작됐죠. ‘재는 불쌍한 아이야~’, ‘엄마가 안계신대도 참~ 열심히 해’.
급식이 아니라 도시락을 싸와서 먹는 학교였는데, 친구들이 저를 위해서 조금씩 많이 싸왔어요(같이 먹자고). 피씨방을 갔는데 제 돈을 대신 내줘요.
고2때 어머니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친구들과 똑같이 잘 못 했는데 저는 별로 혼나지 않는 것이 싫었어요. 엄마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때면 제 눈치를 보는 게 싫었어요.
물론 안좋은 쪽의 차별도 있었어요. 제가 조금만 버릇없게 행동하거나, 일탈적인 것을 하면 ‘엄마가 없어서 그래’. 그래서 전 무엇을 못하거나, 실수하거나, 혹시 이것을 안 좋게 보지는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전 지나친 동정도 싫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도 싫었어요. 그저 남들과 보통의 아이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싶었어요.
- 우리 주변에는 또 어떤 ‘차별’이 있을까요?
장애인에 대한 차별? 남녀간의 차별? 빈부의 차별?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한 차별? 인종차별?

※ ‘차별’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에 따른 거부감에서 옵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다인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서로 ‘차별’하였습니다. ‘차별’로 인한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길은 우리가 겪어 나 본 ‘차별’을 ‘차별’이라고 인식하는 것에 있습니다.

[말씀 나누기 질문 3]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요한 4.21)

예수님은 유다인들과 사마리아인들 모두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이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차별을 극복한 경험이나, 그렇게 도움을 사람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앞에서 말했던 제가 받았던 차별의 경우, 어쩌면 저의 자격지심이 문제였을 수도 있죠. 상대방을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그 두려움과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좋은 선생님이 덕분이었어요. ‘아~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해서 이러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저의 그런 마음들을 없애준 것 같아요.
중2때 답답 선생님은 아직도 매년 5월마다 친구들과 함께 찾아가는데, 절 다른 사람과 똑같이 대했어요. 물론 그런 상황의 아픔과 힘든 것에 대해서 따뜻한 말과 조언은 해주셨지만, 평소에는 완전 똑같이 대해주셨죠.
중3때 선생님은 저의 성당을 다니시는 분이셨는데, 저에게 용돈을 주셨어요. 대신 그 돈을 다른 곳에 쓰지 않고, 점심을 먹는데만 사용하도록 하셨어요.

고등학교 때 저의 Cell 담당 선생님은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해주시며 정말 친구처럼 저를 대하셨고, 고3때 성당에서 저희를 담당하셨던 선생님은 수험생을 위한 부모님 기도모임에 나가셔서 100일간 저를 위해 기도하신 내용을 노트로 만들어서 주셨죠.

동정과 편견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꼈을 때, 차별받는다느 느낌으로 인한 상처가 치유됐던 것 같아요.

- 되도록 1번과 2번 질문에서 나눔을 하지 않은 학생을 먼저 시킬 수 있도록 한다.

- 2번에서 나눠줬던 차별을 혹시 극복한 사람?

(있다면) 그럼 어떻게 극복했는지 한 번 얘기해 줄 수 있어? 혹은 얘기해 줄래?

(없다면) 아직 다들 극복하지는 못했네? 그럼 내 주변에 혹시 차별 받는 사람에게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한 번 생각해볼까? 왕따를 당하는 친구, 아니면 동네에서 아이들의 놀림 받는 사람, 혹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무시받는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겠지.

- 친구들의 얘기들을 들어보니 어때요?

차별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힘을 내어 스스로 극복하거나, 차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죠.

'차별'하거나 받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 '차별'을 인식하는 것!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도 차별이 싫은 것처럼 하느님께서도 서로를 차별하며 갈등이 생기고, 반목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런 하느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가 되어야겠지요?

말씀 가꾸기 복음의 내용과 비슷한 예화 또는 작업거리를 제공한다.(선택사용)

*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좋게 말하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이다."(토마스 풀러)

지금 이 자리에 있지는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진심을 담은 편지를 써보도록 합시다.

- 어색하고, 오글거려서 평소와 하지 못하는 말들이 있어요. 나는 진~짜 이 친구를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운 것들.

한 번, 평소와 전하지 못했던 그 마음을 가득 담아 여기에 적어봅시다.

To 친구에게	
---------	--

정 리 복음의 메시지와 나눔의 메시지를 통합하여 정리한다.

- 하느님께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다는 믿음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기초예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서로 사랑하며 같은 자녀가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 봤던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처럼 지금 우리 사회 안에 많은 차별들이 우리를 갈라놓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주님을 향한 믿음과 닮아가기 위해 따르는 삶을 통해 수많은 차별을 극복해야겠지요? 내 주위에 있는 사소한 차별부터 극복하고, 없애기 위해 노력해봅시다. 서로 함께 노력할 때 우리는 정말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될 수 있을거예요.

5분 교리

매주 기본 교리의 학습을 위한 준비를 한다.

12. 입문성사

12.3. 견진성사의 의미와 효과

- 견진성사라는 말 들어봤죠? 뭐예요? 혹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맞아요 or 들어보기는 봤는데 잘 설명은 못하겠죠?

우리는 다 세례성사를 받았어요. 첫영성체를 받으며 미사 때마다 성체를 모실 수 있게 되죠.

이 세례성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하죠.

그럼 견진성사는 뭐냐? 아이가 어른이 되는거예요.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어른들처럼 막 밥을 먹거나 뛰어다니지 못하고, 점점 자라면서 배워가고 성장하는 것처럼, 신앙인들은 세례성사를 받고 난 뒤에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해주는 견진성사를 받아

요.
세례를 통해 이미 받은 성령의 은총을 더욱 성숙하게 받아들이고 성령의 은사에 따라 공동체 안에서 봉사할 힘을 얻게 해주는 성사예요.

어른이 되면 성인식을 하는 것을 TV를 통해 본 적 있죠? 견진성사는 영적인 성인식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견진성사를 받게 되면, 어른으로서 자신이 받은 은총을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사명과 힘을 받게 되요. 그래서 견진성사를 받아야 다른 사람의 '대부'나 '대모'가 되어줄 수 있게 되고, 나의 '대자'나 '대녀'가 올바른 신앙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죠.

(그래서, 성직자나 수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꼭 견진성사를 받아야 해요)

세례성사는 본당 신부님이 보통 주시는데, 견진성사는 주교님이 본당에 오시죠. 주교의 안수와 기를 바름으로 성사가 이루어져요. 이 때 성령의 인호를 받게 되는데, 세례성사 때 새겨진 영적인 인호를 완성함으로써, 세례 성사의 은총을 완성하게 되죠.

이렇게 견진성사를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선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안건도의 및 공지사항

본당, 지구, 교구 행사 및 기타 필요한 내용을 회의한다.

지도자 말씀

- 학생들의 나눔을 들으며 꼭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를 한다.

- 늘 나눔교리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은 우리들만의 비밀로 하지만, 오늘은 차별에 대하여 이야기하다보니 각자의 아픈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들 알겠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어요. 여기서 나온 이야기는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잘 간직해두고, 이 교리실을 나가는 순간 절대 입밖으로 꺼내지 않기 약속할 수 있죠?

마침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가 이 시간 나누며 배운 아버지의 지식과 지혜로 세상에 나아가
	아버지 안에 함께 만나 아버지를 잃은 아름다운 별로 다시 빛나고 있는 저희의 감사를 받으소서.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천국을 선포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말씀나누기 요령

-학생이 진행할 때-

01. 진행자의 기본 자세

- a. 다른 친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라.
- b. 귀 기울여 듣되 판단하지 마라.
- c. 모두에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주의하라.
- d. 발표를 꺼리는 친구에게 한 번 권유하되 억지로 시키지 마라.
('돌아가며 발표하기' 는 매우 부적절한 방법이다)

02. 학생 발표 요령

- a. '우리' 가 아닌 '나' 라는 표현을 쓰게 하라('I' message)
- b.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이끈다.
- c. 나눔 이야기에 대해서는 비밀을 지키도록 약속한다.

03. 나눔 질문에 대해서

- a. 처음 질문을 받는 사람은 나눔 질문이 생뚱맞게 느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진행자가 나눔 질문을 잘 풀어서 설명을 해야한다.
- b. 나눔의 질문은 절대적이지 않다. 혹시 복음을 읽고 다른 주제가 있으면
선생님과 상의해서 그 주제로 나눔을 해도 된다.

04. 나눔 교리 전에 지켜야 할 원칙

- a. 목요일 혹은 금요일에 학생들에게 전화와 문자로 주일학교 빠지지 않도록 챙긴다. 연락은 나눠서 하라.
- b. Cum은 성당에 두고 다니는 교재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들고 다니는 교재이다. 성당에 올 때 Cum을 가지고 오라고 반드시 전해야 한다.
- c. 나눔 교리 진행자는 미리 복음을 읽고 묵상한다.
- d. 다른 친구보다 먼저 와서 친구들을 기다려라.
- e. 본당에서 Cum을 처음 받으면, ‘하늘에서 온 편지’에 선생님 글이 있는지 확인한다. 혹여 편지가 없으면, 본인이 직접 다른 친구에게 편지를 적어 준다.

05. 나눔 교리 할 때 지켜야 할 원칙

- a. 자신이 먼저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눈다.
- b. 나눔 교리는 가리키거나 시키는 것이 아니다. 지시하거나 명령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나눔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 c. 나눔을 하는 친구들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되거나 나눔을 하는데 서툴 수도 있다. 나눔을 하기 전에 기도를 정성껏 봉헌하고, 하느님께서 이 나눔을 이끄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나쁜 복음 나누기란 없다.
- d. 친구들이 복음 나누기가 재미없고 하기 싫다고 해도 흔들리지 마라.

06. 나눔 교리 한 후 지켜야 할 원칙

- a. 나눔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하지 않는다.
- b. 나눔이 잘 안됐거나 진행이 미흡했다고 실망하지 마라. 둘이나 셋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항상 예수님께서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믿어라.
- c. Council과 Unit에서 나눔교리 진행을 보고 배워야 한다.

07. 말씀 나누기 정리하기

- a.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간략하게 정리하라.
- b. 다음 발표 때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라.

말씀나누기 요령

-교사가 진행할 때-

01. 교사의 기본 자세

- a. 학생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라.
- b. 귀 기울여 들되 판단하지 마라.
- c. 학생의 의견을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들지 마라.
- d. 한두 학생의 의견을 듣고 나면 그 의견을 정리해주라.
- e. 모두에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주의하라.
- f. 발표를 꺼리는 학생에게 한 번 권유하되 억지로 시키지 마라.
('돌아가며 발표하기' 는 매우 부적절한 방법이다)
- g. 교사도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나눔에 참여하라.

02. 학생 지도 요령

- a. '우리' 가 아닌 '나' 라는 표현을 쓰게 하라('I' message)
- b. 이론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이끌어라.
- c.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지도하라.
- d. 나눔 이야기에 대해서는 비밀을 지키도록 지도하라.

03. 나눔 주제 정하기

- a. 나눔 주제 전체를 한 번 읽도록 하라.
- b. 원하는 주제를 학생이 정하도록 의견을 물어라.
- c. 가장 많은 학생이 원하는 한두 가지로 나눔 주제를 정하라.
- d. 학생들의 호응이 없을 때는 교사가 임의로 정하라.
- e. 필요시 주제 숫자를 정하지 않고 전체 주제를 활용하라.

04. 아무도 먼저 발표하지 않을 때 (순서대로)

- a. 정해진 주제를 한 번 더 읽고 발표를 독려하라.
- b. 잠시 침묵을 지키며 발표를 기다리라.
- c. 전체 학생 하나하나와 눈길을 마주치며 신호를 보내라.
- d. 교사가 먼저 발표를 하라.
- e. 활발한 학생부터 발표하도록 지명하라.
- f. 나눔 주제에 대해 먼저 써보는 시간을 주고, 쓴 것을 발표하도록 권고할 수도 있다.

05. 말씀 나누기 정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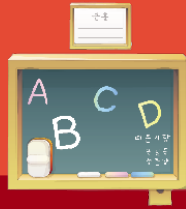
- a.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간략하게 정리하라.
- b. 교사로서 듣고 느낀 점을 간략하게 발표하라.
- c. 다음 발표 때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라.



“젊은이들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그들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야 합니다.”

(돈 보스코 성인)

학생 유형별 대처방안



01. 화해자 Style

갈등을 줄이려 애씀. 갈등 시에는 화해를 위해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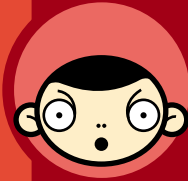
논쟁이 일어날 시 발언권을 주어 논쟁을 정리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02. 훼방꾼 Style

수업을 방해함. 행동이나 생각이 빗나가기 일쑤.
학생들의 모든 의견에 부정적 반응.
나눔과 관계없는 개인적 경험 이야기.

교사는 정성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
그의 태도나 언행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치지는지에 대하여
귀담아 듣도록 도와주곤, 학생의 언행에 대하여 뒷북치듯
'반응' 만 보이지 말고 의식적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03. 도우미 Style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며 이야기 함. 따뜻하고 친절.
다른 사람들이 나눔에 적극 참여하는데 모범이 됨.

이 학생을 충분히 활용하라. 특별히 나눔 시간에 먼저 발표하도록 교리 전에 부탁하여
나눔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29

04. 척척박사 Style

이론적으로 박학다식.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인상을 줌.

이런 학생의 발표는 이론적이지만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을 수 있다.
그러한 말들이 자신의 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질문하여 실제적인 나눔이 되도록 이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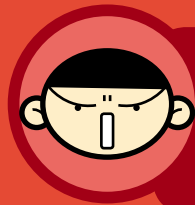


05. 새침떼기 Style

냉담하고 수동적. 낙서와 백일몽을 즐김.
지나치게 격식을 차리면서 나눔에서 참여하지 않으려함.

어느 누구도 참여를 강요받아서도 안 된다. 조용히 있는 사람에게에는 그들이 당황스럽지 않게
의견을 묻는 데 주의를 기울여라.
부끄럼을 많이 띠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참여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되 모임 중에 조용히
있어도 괜찮다는 느낌을 갖게 하라.





06. 만년학도 Style

자신의 생각보다

다른 사람(특히 권위자)의 생각이나 이야기를 전하는 경향.

다른 사람의 의견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말하도록 권유한다.

07. 싸움닭 Style

공격적. 사람들을 비난하고 자존심을 꺾아 내리는 행동으로 자신의 입지를 확보. 몇몇 학생에게는 적대감 표출.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누군가가 상처를 받는 상황이 벌어지면 교리 중에 그를 책임지는 일은 피해야 하지만, 계속 공격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08. 해결사 Style

아이디어와 해결책들을 제시.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들을 공격. 접근방식이 분명하고, 자료 구성에 소질. 그러나 쟁점을 제대로 파악하기 전에 그룹을 움직이려고 하기도 함.

이런 학생이 수업을 좌우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을 주시하라. 왜냐하면 이들은 학생이면서도 교사보다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업이 나가야 할 방향이나 진행 속도에 대해서는 당신의 판단을 더 신뢰하라.



30

09. 익살꾼 Style

장난과 익살이 넘침. 다른 사람 흉내를 잘 내서 때로는 수업에 방해가 됨. 적절한 정도라면 오히려 긴장을 누그러뜨리는 데는 도움. 익살을 떠는 것은 위협적인 쟁점을 피하거나 사람들을 자기에게 집중시키는 그들만의 방식이기도 함.

관심이 이들에게 집중되는 것을 피하라. 또 그들에게 질문을 던져서 그들이 진지하게 나눔에 임하게 하라. 만일 증상이 지속되면 그들이 수업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주목받을 수 있는 일거리를 맡겨라.



10. 독불장군 Style

참견쟁이. 말문을 열면 장시간 독백.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며 독선적. 사람들의 인정과 확인 부족에서 오는 깊은 불안감으로 심각한 문제 증상을 드러냄.

교사는 상호 작용의 흐름을 잘 통제하여 각 학생이 기여할 여지를 준다. 다른 학생에게 눈을 맞추거나 의견이 없었는지를 직접 물음으로써 그들을 나눔에 참여시키라. 좋은 의견이나 긍정적인 기여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도 인내를 가지고 듣도록 격려하라. 하느님은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Cüm